

LG엔솔, 전략특허 1000개 중 침해 580건... 소송戰 돌입

소·중대형 배터리 차세대 기술 유출 국제특허풀로 단계적 라이선스 계획 김동명 “침해시 소송 등 강경 대응”

LG에너지솔루션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 대응한다.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자사가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수만 해도 580건에 이른다.

특히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 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의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의 기술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 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속되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에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 이한선 상무는 “LG에너지솔루션은 산업의 초창기부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Original Innovator)”라며 “앞으로 기술 주도권을 지키고 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의 정당한 거래 시스템을 조성하고, 불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LG에너지솔루션

법적인 침해 사례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 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 되어 쓰이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 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회피하여 배터리를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트(Rule-setter)로서 고유의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를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 함으로써 라이선스 사업과 관리를 효율화 한다. 이미 반도체, 통신 등 주요산업에서 특허 라이선스 시장이 활발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선도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선도업체는 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로열티를 수취해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후발기업은 정당한 특허권 사용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경우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한 대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도업체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에 앞장서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고 미래 핵심 기술 개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지방투자”

중견기업, ‘지방투자 의향 조사’ 61.2% “상속공제 확대시 신규투자” 62% “상속세 감면 땀 지방 이전”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상속세 추가 감면까지 더해질 경우 신규 투자뿐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곳 중 8곳 이상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제·지방세가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가중견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지방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62%는 상속세 감

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지방 투자 규모는 ‘100억 이상~500억 미만’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0억 미만’(28.4%), ‘1000억 이상’(14.7%), ‘500억 이상~1000억 미만’(13.8%) 순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9.1%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현행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48.3%는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사업 영위기간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30년 이상 600억 원) 범위를 ‘사업 영위기간별 400억·600억·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상속세 감면에 더해 ‘중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81.9%)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애경케미칼, ‘스페셜티 제품’ 기술개발 집중

‘슈퍼섬유’ 아라미드 주원료

애경케미칼이 석유화학업계 불황 타개책으로 ‘스페셜티 제품 강화’를 선택했다.

애경케미칼은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등 고강도·경량화 소재를 회사의 미래를 걸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선정하고 전사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TPC(TerePhthaloyl Chloride)는 강철보다 가볍고 단단한데다 난연성까지 갖춰 ‘슈퍼섬유’로 불리는 아라미드 섬유 주원료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라미드 섬유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TPC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애경케미칼은 지난 2010년대 중

반부터 TPC 국산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해 독자적 기술을 만들고, 지난 2020년에는 울산공장에서 데모 플랜트를 가동했다.

기존 TPC 생산 방식은 ‘열’을 활용해 이산화황과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했다. 반면 애경케미칼이 적용한 ‘공 공법’은 이산화황 가스 발생을 억제하고 염화수소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애경케미칼은 지난 2023년 11월 시제품을 생산해 품질 검증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양산 체계 구축만을 앞두고 있다. 2025년까지 양산 체계 구축을 마무리 짓고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해 아라미드 섬유 밸류체인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박성호 “사옥 이전 권한 소진공에 있다”

〈소진공 이사장〉

대전내 이전 지역 여론 반대 기자회견 “소진공 설립 원도심 활성화 아냐” 노조 “이전 반대 주장은 자기모순”

대전내에서 사옥을 옮기겠다고 결정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배수진을 단단히 쳤다.

원도심 활성화를 이유로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전시와 지역 언론을 향해 사옥 이전의 결정주체는 소진공이라고 강력하게 전달하면서다.

소진공은 24일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사옥 이전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이날 “사옥 이전 결정 권한은 소진공이 갖고 있다. 사옥이기는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업무 환경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진공은 현재 있는 중구 대흥동에서 6월에 유성구 지족동으로 본부를 이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사옥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진공

대전 원도심 공동화는 85년 조성한 둔산 신도시, 99년 대전시청 이전, 2012년 충남도청 이전 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소진공의 입장이다. 게다가 대전의 도심 중심축이 중구에서 서구·유성구로 변화한 것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요인으로, 소진공의 입지는 부차적인 사유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원도심 활성화는 대전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중앙·지방, 민·관·자치단체·지역상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노력할 문제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입주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박 이사장은 “사옥 이전과 함께 앞으로 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LGU+, ‘키즈토피아’ 자연탐사 콘텐츠 출시

자체 개발 AI 기술 ‘익시’ 적용

LG유플러스가 어린이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키즈토피아’에서 생태체험 학습 콘텐츠를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오프라인 생태체험 학습 콘텐츠 ‘지구사랑탐사대’를 메타버스 환경에 구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구사랑탐사대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인 익시(ixi)를 적용해 서비스 이용자의 메타버스 경험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도시, 산, 바다 등 다양한 자연환경은 물론 시간과 계절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메타버스 체험 공간 내 익시 기반 NPC(Non-Player Character, 사용자가 직접 조종할 수 없는 캐릭터) 안내원을 배치함으로써, 사용자는 자연환경을 탐사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AI 안내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최고기술책임자)는 “AI와 메타버스를 융합해 가상세계에서 현실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연 학습 콘텐츠를 구현, 이용자들이 현실에서 접하기 어려운 동식물을 관찰하며 공부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